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전북대·전주대, 정원감축 대상 제외 저력 보여

일반재정지원 대학 경쟁력 강화 큰 도움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과 부

정·비리 제재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이 일반재정은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대학 재량껏 폭넓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나타난 대학 자율성 침해 등의 비판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춘 60% 내외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고인 A 등급을 받아 정원 자율조정 대학에 포함된 이후 2주기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갔다. 전주대도 1주기에 이어 2주기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에 선정되어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1주기에는 전국 163개 대학 중 34개 대학만이 선정된 최우수등급(A 등급, 정원 자율조정)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주기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하려던 5만 명 중 2만 명을 역량진단을 통해서 감축하고 나머지 3만 명은 '시장논리'에 맡겨 자연 감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정답 이상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7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외 신청 전용계산을 통해 총 1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문제와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등 불합당한 사유로 심사대상은 52개 문항 104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심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52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52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을 19일 오후 5시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했다. /뉴시스

호남이 낳은 조선후기 실학자 이재 선생의 사상 엿보기

전북대 이재연구소, 내일 학술대회

호남이 낳은 조선후기 대표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黃潤錫)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11번째 학술대회를 통해 이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콘텐츠의 보고인 '이재난고'를 통해 이재 선생의 다양한 학문세계를 살핀다.

특히 최영성 교수의 이재 황윤석의 정치활동 일고에서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이재 황윤석의 영조 탕평책에 관한 관점과 호남 차별에 대한 인식 및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엿볼 수 있고 최승룡 교수의 '이재난고와 18세기 지성사의 구도'에서는 당시 학계의 학맥과 학파 그리고 대표적 지식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 르네상스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18세기의 학문 특장을 지성사라는 이름 아래 살펴볼 수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봉근 원광대 교수의 비오 김원행의 호남 지역 문인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박명희 교수(전남대)의 이재 황윤석의 시조 한역에 나타난 창작 정신, 최영성 교수의 이재 황윤석의 정치활동 일고, 최승룡 교수의 이재난고와 18세기 지성사의 구도, 이상봉 교수의 황윤석 한시에 나타난 官職에 대한 고뇌와 그 극복 양상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발표를 통해 이재 선생의 이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엿본다.

또한 김봉근 교수의 비오 김원행의 호남지역 문인연구에서는 호남재향사족들이 당시를 대표하는 낙촌계의 거장 미호 김원행과 어떻게 효율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지식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중앙과 연결하는 인맥을 구축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문종 이재연구소장은 "연구소는 '이재난고'의 완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며 "전북도청과 고창군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재 황윤석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이재학 연구 붐을 조성하고 나아가 호남실학의 연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대변인은 "그 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직권 취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



20일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운수노조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버스보조금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 처리하지는 입장"

정외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직권 취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

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그 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직권 취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

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행정처분을 이달까지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벌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 장관 발언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풀이돼 직권 취소 가능성이 대두됐다. /뉴시스

도교육청, 9월 1일자 임용예정 교육장 공개모집

전북도교육청이 2018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인 교육장을 공개모집한다.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적 소신과 철학,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 기준은 초·중등 교장, 초·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며, 교원 4대 비위자(금품형용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는 등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지원희망자는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교육청 경영제안서 등을 갖춰 이달 22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제외하며, 교원 4대 비위자(금품형용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는 등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지원희망자는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교육청 경영제안서 등을 갖춰 이달 22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